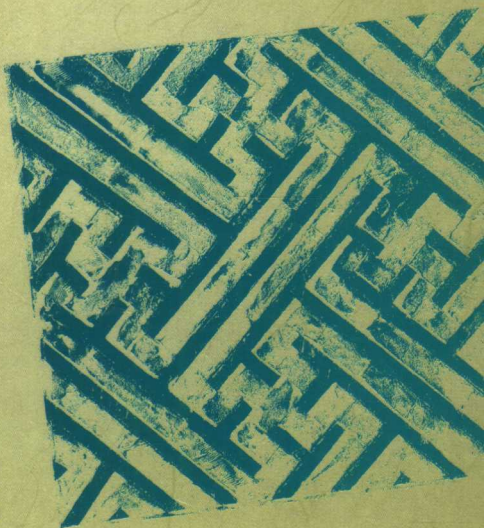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
국제학술토론회 논문특집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 문학비교연구

● 주 필 리원길
● 부주필 박승권



민족출판사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 문학비교연구

● 주 필 리원길

● 부주필 박승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改革开放时代的面向世界的朝鲜(韩国)文学比较研究 /
李元吉等著. —北京:民族出版社, 2005.7

ISBN 7-105-07166-4

I. 改... II. 李... III. 比较文学-韩国-文集-朝鲜语
IV. I312.606-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079794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8月第1版 2005年8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640毫米×960毫米 1/16 印张: 24 字数: 355千字

印数: 001-700册 定价: 32.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개회사

중앙민족대학교 부교장 곽위평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존경하는 래빈 여러분

우리 나라 인민들이 성과 휘황한 2003년을 기쁨으로 보내고 충만된 신심과 격앙된 투지로 새로운 한해 2004년을 바야흐로 맞이하게 되는 이때 국내외 조선(한국)문학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국제학술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중앙민족대학 전체 교원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불원만리 북경에 오신 국외 학자, 전문가 여러분께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오신 국내 학자, 전문가 여러분께 열렬한 환영과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중국과 조선, 한국은 린국으로서 모두 동방문화권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고대로부터 문학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령역에서 서로 영향주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추동하면서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에도 중국 당나라의 리백과 두보의 시가는 조선 고대한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리백과 두보의 이름은 지금도 조선(한국)사람들이 거의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고전명작인 《삼국연의》, 《수호전》, 《서유기》, 《서상기》 등도 조선(한국) 고대문학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애독되고있는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고대의 악부시가 《공후인(箜篌引)》, 당나라에 류학했던 신라의 문인 최치원의 《쌍

녀분기(雙女墳記)》, 조선 고대 녀류시인 허란설현의 한시 등은 또 중국 고대문학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 중국과 조선(한국)은 모두 외국열강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러기에 민족해방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환난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유럽의 근대 문명과 문화의 영향하에 두 나라의 문학은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두 나라의 문학은 서로 영향주고 서로 추동, 촉진하면서 민족해방의 길에서의 동방문화와 동방문학을 다 같이 발전시키고 풍부화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부동으로, 중국과 한국 문학지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와 구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공통점도 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외국문학예술의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들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자양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만 해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끝난후 조선의 영화 《꽃파는 처녀》, 《금희와 은희의 운명》 등은 중국 관중들의 인기를 대단히 끌었으며, 근래에는 중앙텔레비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한국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등이 아주 많은 중국 관중들을 매료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문학의 거장인 로신, 파금, 모순의 작품들도 조선과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어 광범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개방시대입니다. 개방시대 중국과 조선, 중국과 한국간에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영향은 부단히 증폭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문학과 조선문학,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질것이며 서로간의 추동작용도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국제학술토론회도 그 목적이, 중국과 조선(한국) 문학지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문학발전의 법칙적인것들을 탐구해냄으로써 중국과 조선(한국)문학의 공통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를 통해, 비교문학의 일반 이론과 방법론은 물론이거니와 중조, 중한 문학비교를 포함한 세계 각 나라 문학과 조선(한국)문학의 영향비교와 평행비교에서도 그리고 중국 조선족문학과 중국 기타 민족문학과와의 미시적인 비교에서도 모두 새로운 성과를 거두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 성과는 저희 학교 조선언어문학학부의 과학연구와 교육을 크게 촉진시킬것이며 우리의 과학연구와 학생교육을 더욱 힘차게 앞으로 밀어줄겁니다.

대회에 참석한 여러 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큰 성과를 거둘것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

중앙민족대학교 소수민족언어문학대학 학장 문일환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커다란 발전과 성과로 빛나는 한해인 2003년이 바야흐로 지나가고 보다 희망찬 새해인 2004년의 서광이 바야흐로 펼쳐오고있는 이때, 우리는 또 한자리에 모여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국제학술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조선학연구소에서 네번째로 가지는 규모가 비교적 큰 국제학술회의이며 문학연구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로는 두번째가 됩니다.

저는 중앙민족대학교 소수민족언어문학대학을 대표하여, 년말 백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불원천리 먼 곳에서 찾아주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바입니다. 더우기 북에서 오신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은종섭학장님과 남에서 오신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최원식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인류 정신의 찬란한 재부인 문학예술은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그리고 민족과 민족지간의 상호 영향과 교류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발전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영향과 교류가 없으면 문학예술의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서방문학과 동방문학의 상호 영향과 교류는 근대에 이르러 뚜렷하게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동방권내의 중국문학과 조선(한국)문학, 일본문학 등은 근대이후는 물론이고, 언어문자와 지역 그리고 문화의 상관성으로 인하여 머나먼 고대부터 상호간의 긴밀한 영향과 빈

변한 교류로 계승되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영향과 교류는 현대에 이르러, 더우기는 개방시대에 이르러 더욱 자유롭고 활발하게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각 나라의 문학을 계속 앞으로 추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에 대한 다방면의 비교연구는 개방시대의 조선(한국)문학의 발전의 여러 방면의 합법칙성을 찾아내는 리론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그 창작실천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족을 위주로 하는 다민족국가입니다. 중국의 조선족의 문학은 중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온 조선(한국)문학의 혈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있습니다. 더우기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조선(한국)문학의 자양은 보다 자유롭게 우리 조선족문학에 흘러들어 조선족문학의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국제학술토론회는 중국 조선족문학과 그 연구를 한결음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입니다.

저희가 몸담고있는 중앙민족대학교 소수민족언어문학대학은 중국에 많지 않은 기초과학중점기지이며, 조선언어문학학과는 또 중국의 일급학과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선(한국)고대문학사, 조선(한국)근현대문학사 등은 이 학과의 근간 학과목들입니다. 이번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비교연구》국제학술토론회의 성과는 앞으로 저희 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의 학술연구와 교육실천을 한결음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는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여러분들의 깊은 연구로 이루어진 알찬 성과들로 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될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기간 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의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중앙민족대학교 당위 부서기 리동광

대표 여러분,

귀빈 여러분,

이틀동안 여러분의 지성어린 노력으로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는 기대하던 과제들을 충분히 완수하고 오늘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민족대학교 전체 교원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시고 열띤 토론을 벌리신 국내외 여러 학자, 교수님들께 진지한 사의와 축하를 표하는바입니다.

세계상의 모든 사물은 고립되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서로 영향주는 과정에서 변화, 발전하는것입니다. 인간사회의 예술적반영이면서도 작가 주관의 심미적소산이기도 한 각국의 문학예술도 서로 고립되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영향과 연계속에서, 상호 작용과 추동속에서 발전, 변화하여온것이며 또 발전, 변화하고있습니다.

더우기 현재, 개방시대에 이르러서 각국의 문학예술간의 상호 교류와 상호작용은 더욱 활발해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에 대한 비교연구는 조선(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필요할뿐만아니라 조선(한국)문학과 비교속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비교문학 일반의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문제 등을 포함한 문학비교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무게 있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을뿐만아니라 현대 중국문학과 조선(한국)문학의 구체적인 작품들에 대해서도 논리 면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비교문학의 이론들을 실제 연구에 인입, 응용함으로써 개방시대 세계속의 조선(한국)문학 비교연구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조선(한국)문학과의 비교속에서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해서도 재조명함으로써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연구를 한걸음 더 앞으로 추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 이런 성과들은 개방시대 조선(한국)문학에 대한 진일보 심도있는 연구에 유익한 밑거름이 될뿐만아니라 우리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어문학과와 조선학연구소의 과학연구와 문학교수를 진일보 향상시키는데도 커다란 빛과 열을 가져다줄것입니다.

우리 중앙민족대학교는 중국 소수민족의 최고학부이며 국가 중점대학중의 하나입니다. 중앙민족대학교에서 우리 조선족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다른 민족에 못지않게 학교의 골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중앙민족대학에 베푸신 국내외 여러 학자 교수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학교의 학술연구와 학생교육을 관심하고 추동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의 부족으로 그동안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널리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04년에, 여러분의 신체 건강과 가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 개회사 박위평
- 축 사 문일환
- 폐회사 리동광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것은

현대조선문학의 주요특징	은종섭 / 1
한국문학의 범위 再論	최원식 / 11
비교 문학 방법론의 새로운 적용	윤여탁 / 29
동아시아를 휩쓰는 《한류》열풍에 대한 문화적해독	김관웅 / 46
항일혁명문학은 가장 애국적인 민족문학유산	신경균 / 69
한설야의 『대륙』과 만주 인식	김재용 / 77
북과 남의 통일주체 시문학	리원길 / 94
리기영, 김동리의 사회리상과 문학관 비교	김명숙 / 111
량백화의 《홍루몽》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윤윤진 김병순 / 137
모순의 《농촌삼부곡》과 리기영의 《고향》 비교연구	김춘선 / 156
중 · 한 현대문학 비교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管見	권혁률 / 176
중 · 한 근대문학 초기의 지식인 주인공 소설 비교 연구	김영옥 / 185
서정소설과 작가의 생애	김경선 / 210
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문학적 대안	최옥산 / 223
20세기 30~40년대 전반기 중국에서의 한국현대문학 번역이입양상 연구	김장선 / 246
안수길의 통정체험과 그가 쓴 로어기원의 외래어	장흥권 / 264

김창걸의 소설사적 위치 재고	장춘식 / 282
해방후 조선족소설의 서사방식 고찰	리광일 / 303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민담	김동훈 / 326
『織女星』의 여성의식과 갈등 양상	서영빈 / 360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것은 현대조선문학의 주요특징

김일성종합대학 은종섭

민족적특성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것은 오늘 조선문학의 발전에서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것은 문학자체의 발전과 그 시대적사명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문학의 력사적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연속과정이다.

토대가 없이 허공중에서 떨어지는 문학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의 발전이 선행한 문학유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자기 민족 고유의 유산, 전통을 말한다. 자기의 것을 부정하고 남의것을 모방하는데 매여달리는 문학은 뿌리없는 꽃과 같이 별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족의 문학유산전통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갱신된다.

아무리 민족문학의 유산이 우수한것이라 하여도 옛날의 유산에는 시대력사적인 제한성이 있기마련이며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것은 보존이지 참다운 의미에서의 계승이 아니며 옛날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그것은 민속적가치이상의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 민족 고유의것을 살리는것은 현대인류문학의 화원을 만발하게 꽃피우는데서도 유일하게 옳은 방도로 된다.

현대인류문학은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거나 해소하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민족문학의 특성을 최대한 발양시킴으로써 비로소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사실 백화가 만발해야 풍만한 화원이 지 한가지 모양의 꽃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절경이나 선경을 묘사하면서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고》라는 구절을 상투적으로 썼던것이다.

물론 민족문학간의 교류와 영향, 현시대의 요구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데서 가치있는 결실을 이룩한 나라와 민족의 성과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필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그것은 매개 민족문학의 개화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연의 요구이다.

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린다. 인간과 그 생활은 민족적이면서 시대적인 성격을 띤다.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한 성원이면서 오늘의 시대적인간이며 사람의 생활도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오늘의 세계와의 교차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생활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벌어지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개척되어 나간다. 민족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문명하고 힘있는 민족으로 발전하여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나가면서 민족들사이의 협조와 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그런것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도 마땅히 현실의 존재 그대로 인간과 생활을 민족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민족의 역사와 현시대와의 유기적통일속에서 그려야 하며 그것은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리유의 하나는 또한 현대조선문학앞에 나선 시대적 사명과 관련되어있다.

문학은 인간에게 복무하며 민족문학은 민족의 생활과 운명개척에 이바지한다.

문학이 사람들의 정신적수양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그 독자인 대중의 요구와 구미에 맞는것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학, 독자가 읽지 않는 작품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생명도 가질수 없다. 인민의 정서와 구미는 민족적이면서 시대적인 성격을 띤다. 민족적특성이 살아난 문학, 오늘 인민들의 시대적요구, 시대적정서에 맞는 문학이라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인민들의 심장을 울릴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의 벗으로, 친근한 길동무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의 분렬은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세계유일의 동강난 나라,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민족의 분렬은 사실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리의와 생존마저 서슴없이 짓밟개버리는 제국주의세력이 우리 민족의 분렬과 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야욕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민족이 외세의 통탁물이 되고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에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분렬지향적인 세력들의 준동을 차단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민족성원들의 대단합을 실현하자면 그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 공통성은 두말할것없이 민족성이다. 민족성은 민족성원 모두의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띠이며 수천년 민족의 삶속에서 이루어진 그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분단 수십년에 생겨난 이러저러한 차이를 순간에 밀어내고 마음과 마

음을 뜨겁게 끌어당기는 민족단합의 강력한 자석이다.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 조선문학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학작품에 구현된 민족성, 민족적특성은 민족성원 누구에게나 강렬한 감정정서적충격을 주고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포라는 인식을 강하게 되새겨주며 겨레의 심장을 하나로 맥박치게 하는 특이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반세기이상 살아온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세계체육경기마당에 출전했을 때 조선민족유일팀의 우승가로 울려 퍼진 《아리랑》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성원을 그토록 한결같이 열광케 했던 사실이 웅변으로 증시해준다.

우리 작가들과 평론가들, 문예학자들은 오늘 중대한 민족적사명감을 자각하며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리는 문제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완전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꽃피워 나갈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문학의 민족적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가치와 의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을 잘 살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려는 지향이 나올수 없다. 자기의 민족문학이 남의것만 못지 않으며 자기 민족 성원들의 구미에 맞는 문학을 창조하는데서는 그이상 좋은 밑천이 없다는 확고한 인식

과 신념이 있어야 민족고유의 문학전통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는것이다.

지난날의 어떤 작가처럼 과거 우리 나라의 시는 거의다 남의 글을 가지고 쓴 한자시이고 소설도 변변한것이 없으며 극문학은 이렇다하게 짬을것조차 없다는 식으로 허무적으로 대하면 남의 문학에 눈길을 팔게 되고 결국 서유럽문학의 말류에서 헤엄치는 가련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게 된다.

우리 문학에서는 시종일관 민족문학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철저히 경계하여왔으며 민족문학유산을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적극 보호하고 내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평론가들이 지난날의 문학유산을 대하면서 작가와 작품을 엄격히 갈라보는것도 그 하나이다.

작품은 물론 작가의 정신적창조물이며 그의 사상정신세계의 반영이다.

그러나 일단 창작발표된 작품은 단순한 작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 사회적가치에 따라 사회의 정신적재부로, 민족의 재부로 된다. 사회의 정신적재부로 태어난 작품은 작가와는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게 되며 그이후 작가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작가가 변하여도 그 가치와 의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 평론가들은 지난날의 문학유산평가에서 작가와 작품을 갈라보면서 작품을 내놓은 이후 작가의 정치생활이 복잡해지고 민족앞에 죄를 지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의 작품이 일정한 역사적시기의 가치있는 유산으로 된다면 변함없이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고있는것이다.

우리 문예학자들과 평론가들은 민족문학유산에 대한 평가와 계승에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있다.

민족문학유산에 대한 평가와 계승에서 역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조건과의 연관속에서 공정하게 분석평가하고 다룬다는것을 말하며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